

49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Chapter

요 18:15~27, 요 21장

찬송가 378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찬양 68장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오늘 배울



말씀

1. 우리의 육신적인 결심과 노력, 의지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음을 압니다.
2. 내가 넘어진 그 곳에서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심을 압니다.

마음 열기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내가 지치고, 내 영혼이 연약해질 때에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나는 고요함 가운데 묵묵히 여기서 기다립니다.

Until you come and sit awhile with me.
주님께서 오셔서 내 곁에 앉으실 때까지.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들 위에 설 수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셔서 폭풍의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내가 주님의 어깨 위에 있을 때 나는 강해집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주님은 나를 일으키셔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공과말씀정리

베드로는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갈릴리 벳새다 지역의 어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을 따를 것을 명하시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나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주님을 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용감히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그를 알아본 하속들과 계집종을 두려워하여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다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깨달은 베드로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휩싸여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했습니다. 자신은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갈릴리 호수 바로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위치를 회복시키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므로써 그가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의 연약함까지도 아셨지만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 21:17)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Simon, son of Jonah, do you love Me?" Peter was grieved because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And he said to Him,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o him, "Feed My sheep. (Jn 21:17)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요 13:36~38)

(눅 22:31~33)

(요 21:17~19)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된 모세에 관한 말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모세가 애굽에서 성장하던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22절)?
2. 그런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쳐 죽였습니다. 그는 그대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25절)?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27~28절)?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29~30절)?
 - ① 모세의 생각 :
 - ② 동포들의 반응 :
 - ③ 그로 인한 결과 :
3.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팔십 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시고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출 4:1, 10, 13)?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까?
4. 모세뿐 아니라 야곱, 다윗, 베드로 같은 신앙의 위인들 역시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어떤 것이었는지 내 생각을 두 가지만 적어 보세요.
 - ①
 - ②
5. 주님 앞에서 실패한 경험 때문에 괴롭고 부끄러워 낙심했던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힘주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혹시 과거에 주님 앞에서 실패했던 경험이나 낭비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두 배로 열심히 살 것을 결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나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



몸이 아픈 동생

무서운 아빠

내가 최고라는 할머니

넉넉치 못한 가정형편

친절하신 선생님



나를 괴롭히는 친구

대한민국 국민

교회의 형제, 자매



늘 지쳐있는 엄마

작고 못생긴 외모

달리기를 잘 함



나를 둘러싼 많은 것.

좋은 것도 있지만 싫은 것도 많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다.

낮을 만드신 하나님은 밤도 만드셨다.

많은 것이 밤에 성장한다. 식물도 머리카락도 키도,

인생의 밤을 견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장의 때임을 기억하자.

밤이 지나면 곧 새벽이 오고 눈부신 아침이 찾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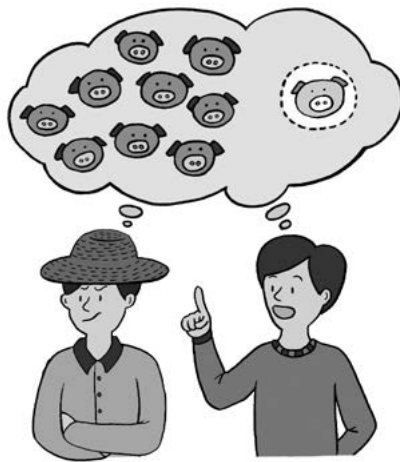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지키지 못할 장담

어느 농부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바친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충성도 다할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이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에게 말 스무 필이 있다면 두 필은 하나님께 바치겠는가?" "아무렴, 십일조를 못 바치겠는가? 말 스무 필이 있다면 당연히 두 필을 바쳐야지. 그런데 나는 말이 없대네." "그럼 소 열 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는 바치겠는가?" "아니, 십일조를 안 바칠 수 있겠는가?" 열 마리 모두라도 바치지. 그러나 나에게는 소가 한 마리도 없잖은가?" "그럼, 돼지 열 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는 바치겠는가?" 이때 그 농부가 버럭 역정을 내며 "아니! 내가 돼지 열 마리 있다는 것을 자네가 어떻게 알았지?" 하더라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없는 것을 앞으로 가지게 되면 바치겠다는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돼지 한 마리는 바치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만큼만 부자라면 나도 바치겠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하나도 바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개와 같은 입장이라면 충성을 다하겠다!'는 장담도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며 말을 앞세우는 충성과 맹세는 믿을 것이 못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위치에서 주님께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5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